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엄중 수사 촉구

광주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연루자 엄중 징계 이삼용 병원장 등 사퇴와 책임있는 사과 요구도

‘아빠찬스’, ‘뽑았이 채용’ 등 전남대병원의 각종 채용비리 의혹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등은 잇따라 기자회견 등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병원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3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문제가 양과결처럼 끼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날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 후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병원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끝났으니 더이상 말하지 말라고 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병원측도 교육부도 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아빠찬스, 삼촌찬스 등이 없으면 광주 공공기관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다는 현실에 청년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대 총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전남대병원장, 사무국장, 진료처장 등 4명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4명은 반드시 국민들과 직원,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공정한 인사 채용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가 전남대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입사, 조국 전 장관 딸의 각종 특혜 등 비리와 불공정함으로 점철된 사회에 분노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채용비리는 결코 한 기업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바늘구멍보다 좁다는 청년취업의 문 앞에 지긋지긋한 채용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전남대병원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썩은 뿌리를 뽑아 버리고 공정사회를 위해 새 싹을 심는 길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벽 없는 화장실 23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한리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

광주 유치원 학부모 월부담금 88,792원...전남 22,557원

박경미 “별도 부담 유치원비 가계에 부담”

정부가 ‘무상보육·무상교육’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실제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광주는 월 평균 8만 8792원, 전남은 2만 2557원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 아동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

금은 10만 3395원이다.

이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만 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월 평균 1만 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지역 학부모들이 실제로 유치원에 내는 금액은 매월 평균적으로 광주가 8만 8792원이고 전남은 2만 2557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전남의 경우 세종과 제주에 이

어 세번째로 낮았다. 광주는 17개 광역단체 중 8번째로 높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치원에서는 수업료, 급식비, 교재 재료비 등 교육과정 기본경비 뿐 아니라 방과후 수업료와 교재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로 부담하는 유치원비가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 유치원 비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천시 스리랑카인끼리 ‘흥기난동’ 1명 사망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이 흥기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42)와 B씨(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경남 사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스리랑카인 3명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자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을 입은 스리랑카인들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고 사이가 나빴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아난 A씨 등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사천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낮 음주운전 50대 가로수 들어받아

대낮에 술을 마시고 트럭을 몰고 가던 50대가 가로수를 들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0분쯤 경남 김해시 정천교 인근 이면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A씨(58)가 가로수를 들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으며, 화물차는 일부 파손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23%,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식사 중에 술을 곁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곡선 도로를 주행하던 중 핸들 조작을 제대로 못해 그대로 가로수를 들어 받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 금속공장 옥상 가건물서 불

인천 남동공단 내 금속공장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2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한 특수금속 공장 전체 2개동 2층짜리 건물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가건물 30㎡쯤 공장 지붕 1㎡를 태우고 23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이 불은 옆 공장 근로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서 접수 20분 만인 오후 6시42분께 완전진화됐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낙찰계 운영 12억원 빼돌린 60대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23일 동네 영세상인들을 회원으로 낙찰계를 운영해오다 갯돈 1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7·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세상인 83명과 낙찰계 15개를 만들어 관리하다 계좌에 입금해야하는 갯돈 11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낙찰계에서 첫 번째로 갯돈을 타갔고 이후에는 자신이 지어낸 가짜 계원 이름을 다음 낙찰자 순서에 넣어 또다시 갯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갯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자 영세상인들은 이달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